

'나눠 갖는 문화예술' 광주 새바람

예술강사·기획자·활동가·교사 등 40여명 '새갈래' 첫 모임

"저는 3년째 10대 미혼모들에게 미술치료를 하고 있어요. 또 시각장애 인들과 '마음으로 그리는 자화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전시회도 합니다. 제 꿈은 '다리'를 놓는 거예요. 미술과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강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린이와 어른 등 연령과 성별, 장애를 떠나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김옥진씨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행복해 했다. 지난 27일 저녁 광주사직공원에 위치한 재즈카페 '마일즈'에서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갈망하는 네트워크'(새갈래) 첫 번째 모임이 열렸다.



지난 27일 광주 재즈 카페 '마일즈'에서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갈망하는 네트워크'(새갈래) 첫 번째 모임이 열렸다. '새갈래'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정기모임을 갖는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보기 위해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장르가 서로 교류하는 문화예술교육 장터이기도 하고,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인큐베이터이기도 한 셈이다.

'새갈래'는 문화예술교육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는 '사례 나눔마당'과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팀과 함께하는 '상상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나는 예술강사다-지금 여기서 예술강사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첫 번째 모임에는 예상보다 많은 40여명이 참여했다. 문화예술교육 기획자·강사·활동가 뿐 아니라, 예술강사들과 함께 학교에서 문화에

를 진행하고 있다.

타 지역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상상워크숍'은 9월부터 시작된다. 충북 괴산의 '신기학교'를 방문해 목운지영(어린이 문화학교 '사과'교사), 김건태(노네임노삼-디자이너)씨 등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했던 이들의 강의를 듣고 김지나(공공문화개발센터 '유아아트' 소장), 지경(공존을 위한 공공문화표현집단 '퍼포먼스 반지하' 활동가)씨를 초청, 워크숍을 진행한

다. '새갈래'는 또 자율적 소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새갈래'를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광주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활동가들의 생각이 넘치는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 5인 이상 다양한 주제로 모임을 꾸려 활동하며, 운영비 등을 지원해준다. '새갈래'를 기획한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의 박형주 팀장은 "시설, 학교,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과 장르에서 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연결고리가 없어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 모임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670-576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월 한차례 모여 아이디어 공유·발전

광주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만들기

DJ 친필 휘호는 얼마?

A옥선, 전직 대통령들 휘호 판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이 쓴 휘호 가격은 얼마나 될까?

미술품 경매 전문업체인 A옥선은 오는 9월12일 서울시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김 전 대통령과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휘호를 판매한다.

이번 경매에 출품된 김 전 대통령의 휘호는 그가 1986년에 쓴 '이민위천(以民爲天·41×32cm)'으로, 경매 시작가는 150만원이다. '이민위천'은 '사기'에 나오는 문장으로 '백성을 생각하기를 하늘같이 여긴다'는 김 전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담겨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A옥선 측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작품의 낙찰 가격은 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생전 많은 휘호를 남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팽호부대의 출정을 기념해 쓴 '상승맹호(常勝猛虎·65×33cm)'의 경매 시작가는 800만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망애(信望愛·135×70cm)'는 200만원에 경매가 시작된다.

이 밖에 A옥선은 이번 경매를 통해 최상중, 황영성, 안창홍, 이대원, 오승우, 임직순, 허건 등의 작품 210여점을 판매한다. 문의 02-725-8855.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민위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비즈니스' 나선다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가 '돈 버는 전시'를 연다. 그동안 예술성을 강조했던 디자인비엔날레가 직접적인 수익 효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산업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업인들 초청 설명회 '산업화' 모색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30일 "오는 9월2일 서울에서 국내 디자인 기업 관계자 60여명을 초청,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 산업화를 모색하는 디자인비엔날레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정국현 부사장, 현대이노션 한규형 본부장, 아이리버 김근호 사장, 삼정 KPMG 김은상 부회장 등 기업 관계자와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디자인하우스 이영태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박세광 비즈니스 큐레이터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을 산업화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지역의 디자인 산업과 전시를 연계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시행한 비즈니스 큐레이터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산업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맡는다.

또 재단은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과 기업인 등이 제품을 구입하고, 디자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관 1전시실에 '비즈니스라운지'도 마련한다.

이곳은 기업, 기관, 언론, 학계 인사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5개 주제별로 특화시켜 소개하는 '비즈니스라운지 데이'도 운영된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비즈니스라운지 데이'는 참가자들이 담당 큐레이터와 함께 비엔날레관과 양림동 일대 전시장을 돌며 작품을 감상한 뒤 디자인 구입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양림동 일대에서 펼쳐지는 어울림 프로젝트 전에서는 참여 작가들이 지역 중소기업 CEO의 외부활동을 돕기 위해 명함을 무료로 디자인해 주는 행사도 갖는다.

재단 홍지영 홍보사업부장은 "디자인비엔날레와 산업간 연결고리를 찾고 유관 기업·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을 주제로 오는 9월8일 개막하는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남구 양림동 이장우 고택 등 광주 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강숙자 시인 첫 시집

'가을 그녀가...' 펴내



전경의 어머니 회 등을 통해 봉사 활동을 해온 강숙자(54) 시인이 봉사활동의 경험과 인생에 대한 의미를 시와 글로 엮은 첫 번째 시집 '가을 그녀가 내게로 온다'를 펴냈다.

총 7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재할원에서 자신의 치부마져 못 가리라는 소년을 돌보며 그들의 내면적 고통을 대신해 보는 심정을 담은 '쪽정이의 생'과 먼저 가신 할아버지의 기일만 외치는 차마에 걸린 할머니께 보내는 연민을 노래한 '어느 할머니의 병석에서' 등 80여 편의 시를 담았다.

또 시집 말미에는 '새벽달' '전역하는 아들에게' 등 가족을 소재로 한 시와 '초대에서의 흐뭇한 마음' '소포' 등 수필도 실었다.

강 시인은 해남 출생으로 2006년 계간 '문화예술'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광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리아·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프랑스 발레의 밤

시립무용단 9월 2일 유명 발레 하이라이트 공연

'클래식 발레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소개합니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프랑스에서 초연했던 클래식 발레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모은 '프랑스 발레의 밤' 공연을 갖는다. 9월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18세기 당대 발레에서 처음으로 평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코믹 발레 '고집쟁이 딸'을 비롯해, 프리마돈나의 섬세한 연기가 돋보이는 낭만주의 발레의 대명사 '지젤', 남성적이고 강렬하며 이국적인

색채가 인상적인 '해적' 등이다. 또 고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구노의 오페라, 가문데 등장하는 '발푸르그스의 밤'과 19세기 희극발레의 전형인 '코렐리아', '아름다운 멜로디와 영구적인 오소가 인상적인 '디아나의 님프' 등을 만날 수 있다.

지젤 역의 구윤지, 메도라 역의 최유정, 스와닐다 역의 조나경 씨를 비롯해 김정희·조성훈·정정은·강진구·최윤정·조나경 씨 등 단원들이 출연한다. 문의 062-510-93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육교 마로 아래)

매도, 매수 ☎ 011-641-0925
상담환영 062)515-4985

추천 임대매물 - 편성부지최적

월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665㎡ 가든식당 매매
-식당 (연회석 300석 완비 - 피로연, 회갑연, MT최적),
체육시설 (수영장, 족구장), 농장 (옛돼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숙박업 - 현 성원중, 모든시설 허가됨
-매매가 3.3㎡당 32만원-

고시텔매매 (금년 5월 준공, 최신시설, 풀 옵션)
대 282㎡ / 건 560㎡ 총 52 실(총 당 월 23만원)
전대 후문 건너 체육공원 인근 -매 8억 5천

임 야

▶16,925㎡(계획관리지역) - 나주 남평(중흥스피드트 임구)
- 매 3.3㎡당 8만5천원

대 지

▶883㎡(제3종 일반 주거지역) - 남구 전월동(광주대 인근)
- 매 11억

▶914㎡-용봉택지지구 현대 3차 앞 -매 3.3㎡당 300만원

상기주택

▶대 496㎡/전 1487㎡(6층건물)-오차동 아파트단지 임구
-매 17억

※ 사원모집 - 상가 중개, 경매컨설팅 하실분 모집니다.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 13,200㎡ (약 4,000평)
■ 건물 : 6,600㎡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가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상담 후 결정

☎ 010-3617-8810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2009년 윤달 5월에 개장하실 분들은 예약을 서두르십시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범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적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적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묘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신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근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